

# 眩暈에 對한 文獻的 考察

薛仁燦 · 金炳卓\*

## I. 緒論

眩暈은 臨床에서 多見되는 疾病의 하나로, 眩은 眼目的 昏眩이고 暈은 腦의 暈轉을 뜻한다<sup>7)</sup>.

眩暈이라는 用語는 《三因方》<sup>25)</sup>에 最初로 記錄되어져 있으며 《內經》<sup>11)</sup> 〈素問〉에서는 掉眩, 頭眩 循蒙으로 〈靈樞〉에서는 眩冒, 目眩으로 表現되었다. 그후 朱<sup>18)</sup>는 頭眩, 張<sup>10)</sup>은 眩運이라 하였으며, 葉<sup>22)</sup>은 眩暈과 頭暈이란 表現을 같은 意味로 使用하였다.

《內經》<sup>11)</sup>에서 “諸風掉眩 皆屬於肝”이라고 하여 眩暈의 病理大綱을 밝힌以後 朱<sup>18)</sup>는 “無痰不作眩”이라하여 痰을 眩暈의 病因으로 主張하였고, 劉<sup>21)</sup>는 “風火皆屬陽. . . 兩動相搏 卽爲旋轉”이라 하였고, 張<sup>10)</sup>은 “虛하지 않으면 眩暈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하여 虛를 強調하였으며 葉<sup>22)</sup>은 肝風을 病因으로 보아 熄風을 主張하는 등 많은 病因 및 病理 등이 提示 되어왔다.

眩暈은 眼暗 身轉, 耳聾 등을 主證으로 하며 輕한 경우는 눈을 감으면 멈추지만 重하면 舟車에 탄 것 같이 惡心, 嘔吐, 汗出 등을 隋伴하고 甚하면 失神까지 이르는 症候<sup>2,3,7,8)</sup>를 말하는데 西洋醫學的으로는 末梢性 迷路疾患, 中樞性 前庭疾患, 呼吸 循環障礙, 精神疾患, 藥物中毒 등에 衣한 것<sup>3,6,7,24)</sup>으로 보고 있으며, 回轉感, 不動感, 眼前暗黑感 등이 同伴된 平衡障礙로서 前庭神經, 前庭器管, 前庭核 등의 機能障礙가 直接的인 原因이 된다<sup>6)</sup>고 하였다.

박<sup>1,2,3,4,7,8,17,20)</sup>은 眩暈이 中風, 高血壓

등의 疾患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實際 臨床에서도 眩暈은 드물지않게 接하고 있으나 여러 症狀들과 同伴하여 나타나고 治療 또한 쉽지않아 이에 論者는 本 疾患에 對한 研究의 初步的 段階로 文獻考察을 通하여 眩暈의 病因 病理 治法에 對하여 檢討하여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 하는 바이다.

## II. 本論

### 1. 黃帝內經<sup>11)</sup>

(至眞要大論)

諸風掉眩, 皆屬於肝

(口問 編)

上氣不足 腦爲之不滿 耳之苦鳴 頭爲之苦傾 目爲之眩

(衛氣篇)

下虛卽厥 不盛卽熱 上虛卽眩 上盛卽熱痛

(海論)

餘卽 輕勁多力 自過基度 髓海不足卽 腦轉 耳鳴脛산眩冒目 無所見 懈答安臥

(大感論)

五臟六腑之精氣. . . 筋骨血氣之精 而與脈并爲系 上屬於腦 後出於項中 故邪中於項 因逢基身之虛 基入深 卽隨眼系以入於腦 入於腦卽 腦轉 腦轉引卽目系急目系急卽目眩以轉矣

### 2. 丹溪心法附餘<sup>18)</sup>

頭眩之證, 多主於痰, 無痰卽不作眩, 有因寒痰 濕痰者, 有因熱痰風痰者, 有因氣痰者, 有因血虛 狹痰者, 基症不一也. . .

頭眩 痰狹, 氣虛併火 治痰爲主, 狹補氣藥, 及 降火藥.

### 3. 劉河間三六書<sup>21)</sup>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教室

掉搖也 眩昏亂旋運也 風主動故也 所為風氣甚而頭目眩運者 由風木旺必是金衰不能制木而木復生火 風火皆屬陽 多為兼化 陽主平動兩動相搏即為之旋轉 故火本動也。

4. 景岳全書<sup>10)</sup>

眩暈一證 虛者居基八九而 兼火 兼痰者 不過十中一二 耳 原基所有即 有勞倦過度而運者 饑飽失時而運者. . . . .

頭眩雖屬 上虛. . . 陽中之陽虛 . . . 治基氣陰中之陽虛. . . 宜補基精

5. 國譯萬病回春<sup>12)</sup>

眩이란 것은 그것이 黑運旋轉하는 것을 말한다. 그證狀은 눈을 감은것처럼 깜깜하고 몸이 轉하고 耳鳴하여서 마치 舟나 車 위에서 있는 것과 같고 일어서면 넘어지려하는 것이다.

무릇 頭眩이란 것은 痰이다.

6. 奇效良方<sup>13)</sup>

丹溪論曰 眩暈分之爲二 皆由痰火爲病 以此分爲二者眩數雖屬痰火 未嘗不由腎虛 兼風邪所得 蓋痰者 本流動之物 又因火動而助甚愈盛 火性炎上得風即愈熾 風火兩動 痰即愈作

經云 諸風掉眩皆屬於肝木

原病式云 風火皆屬乎陽 多爲兼火 陽主乎動而兩動相搏 即爲旋轉也 若人患 此 頭旋目眩 卒然惡心欲吐 眼花視物不的 如屋旋轉 起即運倒

7. 醫學綱目<sup>19)</sup>

眩者. . . 謂眼黑眩也 運者 運爲運轉之運 世爲之頭旋是也.

內經：論眩 皆屬肝木 屬上虛. 丹溪論眩 主於補虛 治痰降火. 仲景治眩亦以痰飲爲先也

河：掉搖也 眩 昏亂旋運也 風主動故也 所爲風氣動而頭目眩暈者 由風木旺 必是金衰不能制木 而木復生火 風火皆屬陽 多爲兼化陽主乎動 兩動相搏 即頭目爲之眩暈而旋轉 故火本

動也.

8. 證治彙補<sup>15)</sup>

諸脈皆系于目,藏腑筋骨之精,與脈并爲系,上屬于腦,後出又項中,故邪氣中于項,因逢基身之虛,基入深者,隨目系而入于腦,即腦轉,腦轉即引目系急而眩矣.

〈內因〉

諸風掉眩皆屬肝木,以肝上連目系而應于風,故眩爲肝風,然亦有因火,因痰,因虛,因暑,因濕者.

〈外候〉

基狀目暗耳鳴,如立舟車之上,起即欲倒,不省人事,蓋眩者,言視物皆黑,暈者,言視物皆轉,二者兼有,方曰眩暈. . .

〈眩分虛實〉

虛者,內外之邪,乘虛入表而上攻,實者,內外之邪,鬱痰上結而下虛.

〈治法〉

先理痰氣,次隨症治,外邪和解清痰火,內 虛本固標自移.

9. 類證聚裁<sup>23)</sup>

頭爲諸陽之會,煩勞傷陽,陽升風動,上擾顛頂,耳目乃清空之竅,風陽旋暈,斯眩暈作焉. 良有肝膽乃風木之臟,相火內寄,基性主動主升,或由心身過動,或由情志鬱結,由地氣上勝,或由冬藏不密,或由高年腎液已衰,水不涵木,或由病後精神未復,陰不吸陽,以至目昏耳鳴,震眩不定. . .

此經所謂諸風掉眩皆屬於肝也. . . .

法宜辛甘化風,或甘酸化陰,葉氏所爲緩肝之急以熄風,滋腎之液以驅熱,肝風皆平,眩暈斯止. . .

10. 臨證指南醫案<sup>22)</sup>

痰多,腕中不이,煩即火升眩暈,

痰火風在上,舌乾頭眩.

酒客中虛痰暈.

頭額悶脹,痰多作眩.

內風狹痰眩暈,吐出清水.

肝風內暈,劫斗津液,頭眩,

內風逆,眩暈.

肝風動逆不熄,頭暈.

#### 11. 濟衆新編<sup>14)</sup>

諸風掉眩皆屬肝,大抵上實下虛,實者風火痰,虛者氣血虛,古人云,無痰不作眩,雖因風亦有痰.

風暈傷風眩暈惡風自汗.

熱暈火熱上攻煩渴引飲.

痰暈痰盛嘔吐頭重不舉眩而悸是飲也.

氣暈七情氣鬱痰迷心竅而眩眉稜通眼不開.

虛暈內傷氣虛,失血多,老人每早氣眩.

腎虛氣不歸元.

濕暈冒雨傷濕鼻塞聲重.

#### 12. 東醫寶鑑<sup>9)</sup>

上虛即眩 又曰上氣不足目爲之眩.

下虛者腎虛也 腎虛即頭痛 上虛者肝虛者 肝虛即頭暈

頭目眩暈者 由風木旺 必是金衰 不能制木而木復生火 風火皆屬陽多 爲兼化陽 主乎動 兩動相搏即 頭目爲之眩暈.

#### 13. 皇漢醫學叢書<sup>24)</sup>

眩暈者 眼前暗黑之意 暈與運通 故有眩運目運 頭眩 冒眩 顛眩之稱. . . 西醫學之貧血 胃腸病 心臟病 腦腫瘍 小腦疾患 多發性硬化 證 癲癇 . . . 神經衰弱 中毒 眼筋麻痺 內耳疾患等往往起眩暈.

#### 14. 東洋醫學叢書<sup>5)</sup>

眩是眼花 暈是頭暈

〈辨證論治〉

本病發生 屬于虛者居多 如陰虛即易肝風內動 血少即腦失所養 精毀即髓海不足 均易導致眩暈 基次由于痰濁壅阻 或化火上蒙 亦可形成眩暈

- 1) 肝陽上亢. . . 平肝潛陽,滋養肝腎.
- 2) 氣血毀虛. . . 補養氣血,健運脾胃.
- 3) 腎精不足. . . 補腎滋陰,補腎助陽.
- 4) 痰濁中阻. . . 燥濕祛痰,健脾和胃.

#### 15. 實用中醫內科學<sup>20)</sup>

眩暈多屬肝的病變 可由風 火 痰等多種原因引起.

〈辨證論治〉

1. 肝陽上亢. . . 平肝潛陽,清火熄風.
2. 腎精不足. . . 補益腎精,充養腦髓
3. 氣血毀虛. . . 補益氣血,健運脾胃
4. 痰濁中阻. . . 燥濕祛痰,健脾和胃
5. 瘀血阻絡. . . 祛瘀生新,行血清經

#### 16. 診療要鑑<sup>4)</sup>

病因 : 上虛하면 眩暈한다.

眩은 暗黑을 뜻하고, 暈은 回轉을 뜻하며, 冒는 昏迷를 뜻하는바 모두 같은 뜻이다.

1. 風暈,傷風으로 인함
2. 熱暈,火熱上攻,風暑熱盛으로 인함.
3. 痰暈,痰盛으로 인함.
4. 氣暈,七情過傷되어 氣鬱하고 心竅를 迷塞하여옴.
5. 虛暈,內傷으로 氣虛하여옴.
6. 濕暈,冒雨傷濕하여옴.

#### 17. 常見病中醫臨床手冊<sup>17)</sup>

眩是眼花 暈是頭暈. . . 起病原因,與素質不強,病後諸虛,憂思鬱怒及飲食 辛辣肥厚等有關. 病理表現有虛實兩介方面,虛證爲心脾氣血不足或肝腎陰精毀損,不能上榮于腦實證爲風陽上擾或痰濁中阻,清陽不升所致.

本虛 肝腎陰精毀損的,滋養陰精,屬心脾氣血不足的,補益氣血,標實屬風,陽上亢的,熄風潛陽,屬痰濁中阻的,化痰和中.

#### 18. 中醫臨床手冊<sup>16)</sup>

- 肝陽上擾. . . 平肝潛陽  
腎水不足. . . 滋腎涵肝,진정補髓  
痰濁中阻. . . 運脾化濕滌痰,清火化痰.  
氣血毀虛. . . 益氣補血.  
下元火衰. . . 濕寒化飲,通脈回陽.

#### 19. 東醫內科學<sup>2)</sup>

眩暈은 하나의 自覺症狀으로서 眩은 眼花를 뜻하고 暈은 頭暈을 뜻하며, . . . 發病原因으로는 風,火,痰,虛 네가지로 나눈다.

〈辨證論治〉

1. 肝陽上擾. . . 平肝潛陽, 養陰安腎.
2. 氣血毀虛. . . 補陽氣血, 健運和胃
3. 腎精不足. . . 補腎助陽.
4. 痰濁中阻. . . 燥濕祛痰, 健脾和胃.

### 20. 肝系內科學<sup>3)</sup>

眩은 眼目的 昏眩이고, 暈은 頭腦의 暈轉이다.

眩暈은 十中八九가 虛한 때문이며, 十中一二가 痰火로 實이라 하였다.

臨床上 上實下虛한 경우가 많은데, 上實이란 痰濁과 風火 또는 肝陽, 간풍作用으로 일어나고, 下虛란 肝腎陰毀, 心脾의 氣血不足 등의 理由로 나타난다.

〈辨證論治〉

- 肝陽上亢, 肝火上炎. . . 養陰平肝潛陽  
 氣血毀虛. . . 益氣補血  
 腎精不足. . . 溫補腎  
 痰濁交阻. . . 祛痰化濕

## III. 總括 및 考察

眼眩, 頭眩, 眩暈 등의 異名을 가지고 있는 眩暈은 大部分 發汗, 蒼白, 嘔逆, 嘔吐, 등의 症狀을 同伴하며 重하면 步行障礙, 失神에 이르게 되는데<sup>2,3,7,8)</sup> 眩暈의 病因을 살펴보면 《內經》<sup>11)</sup>에서 “諸風掉眩 皆屬於肝” “上虛即眩” “髓海不足即 腦轉耳鳴. . . 眩冒”라하여 “虛” 및 “髓海不足”을 현훈의 병인이라고 밝혔고 朱<sup>18)</sup>는 “頭眩之症 多主於痰 無痰不作眩”라하여 痰의 重要性을 強調 하였으며 劉<sup>21)</sup>는 “風火皆屬陽. . . 兩動相搏 即爲之旋轉”라하여 風火를 들었으며 張<sup>10)</sup>은 “眩暈一證 虛者居基八九”라하여 眩暈을 大部分 虛症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公<sup>12)</sup>은 “頭眩이란 痰에서 오는 것이다”라하여 朱<sup>18)</sup>의 理論을 따랐고 枋<sup>13,19)</sup>

等은 劉<sup>21)</sup>의 理論을 따라 風火를 眩暈의 病因으로 主張하였으며 李<sup>15)</sup>는 肝風, 火, 痰, 虛, 暑濕으로 보았고 林<sup>23)</sup>은 煩勞, 心身過動, 情志鬱結, 高年, 腎液氣衰, 病後를 들었으며 葉<sup>22)</sup>은 “肝風動逆不煩頭眩”이라하여 肝風을 들었고 康<sup>14)</sup>은 “實者風火痰 虛者氣血虛”라 하여 虛實로 區分하여 그 原因을 觀察하였으며 許<sup>9)</sup>는 “上虛即眩” “上虛者肝虛也 肝虛即頭暈”이라하여 《內經》<sup>11)</sup>의 理論을 따랐다.

最近의 《實用中醫內科學》<sup>20)</sup>에서는 眩暈을 肝의 病變으로 보면서 風, 火, 痰 등이 原因이라 하였으며 《東醫內科學》<sup>2)</sup>에서는 風火痰虛를 말하였고 《肝系內科學》<sup>3)</sup>에서는 上實下虛로 보았다.

以上の 여러 文獻을 總括하여 볼때 眩暈의 病因은 크게 虛實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實症性 原因으로는 痰濁과 風火 또는 肝陽 肝風으로 볼수있고 虛症性 原因으로는 肝腎陰虛, 氣血不足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眩暈의 病理를 살펴보면 《內經》<sup>11)</sup>에서는 “臟腑, 筋骨, 氣血의 精이 脈과 더불어 上行하여 腦에 屬하며 項中으로 나오는데 邪氣가 項中에 侵入하여 身體의 虛한 틈을 타서 깊이 들어와 目系를 따라 腦로 들어가 腦轉을 일으킴으로 目系가 急하여 眩暈을 일으킨다”고 하였으며, 劉<sup>21)</sup>가 “風木이 旺盛하면 金衰하여져 木을 抑制하지 못하게 되어 木이 火를 生하게 되는데 風火는 陽이고 陽主乎動하므로 風火가 動하면 旋轉한다”라고 하여 眩暈의 病理를 說明한 후 歷代 諸家들<sup>9,10,13,14,15,18,19,21,23)</sup>이 大部分 이러한 病理를 인용하여 眩暈을 說明 하였고 最近의 文獻<sup>1,2,3,8,16,17,20)</sup>에서는 病機를 大體로 肝陽上亢 氣血毀虛 腎精不足 痰濁中阻 등의 辨證類型으로 나누어 說明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以上을 總括하여 보면 《內經》<sup>11)</sup>에서는 經絡病理로 眩暈을 說明하였고 劉<sup>21)</sup>는 陰陽 및 五行의 相生相剋 關係로 病理를 說明한

以來 最近에 와서는 辨證類型으로 病理를 說明하고 있는데 複雜한 現代産業社會의 生活에 따른 스트레스 및 高 칼로리 營養 攝取 등에 따라 肝陽上亢 및 痰濁中阻 等の 病理로 說明되어 질 수 있는 眩暈이 增加하리라 思料된다. 眩暈의 治法을 살펴보면 朱<sup>18)</sup>는 “頭眩之症 多主於痰” 하므로 “治痰爲主”로 治療해야 한다고 하였고 張<sup>10)</sup>은 虛者가 大部分이고 兼火, 兼痰, 勞倦, 饑飽 等이 若干 있으므로 “治基氣 宜補基精” 해야 한다고 하였다. 李<sup>15)</sup>는 “先理痰氣”를 葉<sup>22,23)</sup> 등은 熄風을 爲主로 治療해야 한다고 하였다. 許<sup>9,15)</sup> 등은 風暈, 熱暈, 痰暈, 氣暈, 虛暈, 濕暈 等으로 나누어 治療 하였고 最近의 文獻<sup>1,2,3,8,16,17,20)</sup>에서는 이러한 內容을 辨證類型에 따라 平肝潛陽, 補益氣血, 補腎助陽, 燥濕祛痰 等の 治法으로 辨證施治하였다.

以上을 總括하여 볼때 眩暈의 治法은 主로 治痰爲主였고 張<sup>10)</sup> 以後 虛症에 對한 治療가 主張되었으며 最近에 와서는 高血壓 및 中風 等の 疾患이 增加하는 趨勢에 따라 漸次 平肝潛陽의 治法이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結論

眩暈에 對하여 最近까지의 文獻을 調査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眩暈의 原因은 痰濁, 風火 또는 肝陽, 肝風 等の 實症性 原因과 肝腎陰虛, 氣血虛等 虛症性 原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眩暈은 邪氣가 身體의 虛한 틈을 타 腦로 들어가 腦轉을 일으킴으로서 眩暈을 일으키는 機轉과 風木이 旺盛하여져 金이 木을 制하지 못하게 되면 木生火 하게되어 風火가 動하여 眩暈을 일으키는 機轉 및 肝陽上亢, 痰濁中阻, 氣血毀虛, 腎精不足 等 辨證類型의 病理로 說明되어 진다.

3. 眩暈의 治法은 治痰, 治基氣, 治補基精, 熄風 및 辨證類型에 따라 平肝潛陽, 補益氣血,

補腎助陽, 燥濕祛痰 等の 治法이 있다.

#### 參 考 文 獻

1. 具本泓 外 : 東醫心系內科學, 서울, 書苑堂, 1987, pp.224~235.
2. 具本泓 外 : 東醫內科學, 서울, 書苑堂, 1985, pp.182~186
3. 金秉雲 外 : 肝系內科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9, pp.62~67
4. 金定濟 : 診療要鑑(上), 서울, 現代醫學書籍社, 1983 pp.291~293
5. 國際韓醫學學生會 : 東洋醫學叢書, 서울, 一中社, 1990, 7卷 pp.204~207, 209~213
6. 醫學教育研修院 : 家庭醫學,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87, pp.98~100
7. 朴修泳 外 : 眩暈의 鍼灸治療에 關한 文獻의 考察, 서울, 大韓鍼灸學會誌 Vol. No1, 1990, pp.369~377
8. 黃義完 : 東醫精神醫學, 서울, 現代醫學書籍社, 1987, pp.359~361, p.657
9. 許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9, pp.170~174
10. 張介賓 : 景岳全書(上), 서울, 翰成社, 1983, pp.337~339.
11. 楊維傑 : 皇帝內經素問靈樞譯解, 서울, 成輔社, 1980, (素問) p.662, (靈樞) p.262, 390, 682, 603.
12. 朱甲愼 : 國譯萬病回春(上), 서울, 癸丑文化社, 1977, pp.539~549.
13. 方賢 : 奇效良方, 香港, 常務印書館, 1977, pp.539~549
14. 康命吉 : 濟衆新編, 서울, 杏林書院, 1982, pp.111~112.
15. 李用粹 : 證治彙補, 臺北, 旋風出版社, 1976, pp.216~220
16. 原案徽中醫學院編 : 中醫臨床手冊, 서울, 成輔社, 1983, p.68
17. 江蘇新醫學院第一附屬醫院編 : 常見病中

- 醫臨床手冊，北京，衛生出版社，1979，  
pp.111~113
18. 朱震亨：丹溪心法附餘，서울，大成文化  
社，1982，pp.457~461
19. 樓英：醫學綱目，臺南，北一出版社，  
1973，卷11 pp.1~11
20. 方葯中外：實用中醫內科學，上海，上  
海科學技術出版社，1986，pp.405~413
21. 劉河間：劉河間三六書，서울，成輔社，  
1976，p.257.
22. 葉天士：臨證指南醫案，서울，翰成社，  
1982，pp.31~33.
23. 林佩琴：類證聚裁，臺北，旋風出版社，  
1978，p.347.
24. 湯本救眞：皇漢醫學叢書，서울，平凡出  
版社，1975，卷5 p.2.
25. 陳無擇：三因方，臺北，臺聯國風出版  
社，1978，卷7，pp.6~7.